

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 기록에 대한 인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f Perception and Improvement in Records for Reading Activities in High School Student

최 영 임 (Young-Im Choi)*

목 차

- | | |
|---------------------------------|---------------------------|
| 1. 서론 | 3.1 조사 대상 |
| 1.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 3.2 설문 내용 및 문항 구성 |
| 1.2 연구의 방법 | 3.3 설문 결과 및 분석 |
| 2. 이론적 배경 | 3.4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 기록 개선 방안 |
| 2.1 학교생활기록부와 독서활동 기록 | 4. 결론 및 제언 |
| 2.2 선행연구 | |
| 3. 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 기록에 대한 인식 |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 기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 기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등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독서활동상황' 기록에 대한 만족도, 독서활동 기록의 필요성, 독서활동 기록 방법 등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의 독서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기록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성장한 내용을 도서명으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장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독후활동 기록, 교과교사와의 상호작용 활동 등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독서 평가 방법의 변화와 학교 현장의 바람직한 독서문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records for reading activities in high schools and to make a suggestion for improvement of reading activities records. Data for 120 high school student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or this study. This study showed negative response results in terms of the satisfaction of the 'reading activity situation' record, the necessity of the reading activity record, and the method of recording the reading activity. It is, however, necessary to improve the current recording method to invigorate high school students' reading activities. Since it is not easy to identify students' development in reading by the titles which they provides for the reading activity records, a variety of reading activities need to be recorded for understanding students' development process and interaction activities with teachers. It is expected that the findings in this study will be significant data to improve evaluation methods of reading activities for college admission and to cultivate proper reading culture in high schools.

키워드: 독서 태도, 독서 기록, 독서
Reading Attitude, Reading Record, Reading

*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사서교사(comteacher1@hanmail.net)
논문접수일자: 2017년 4월 17일 최초심사일자: 2017년 4월 17일 게재확정일자: 2017년 8월 24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3): 5-21, 2017. [http://dx.doi.org/10.4275/KSLIS.2017.51.3.005]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의하면 전체 모집인원의 76.2%(26만 5862명)가 학교생활기록부종합전형(이하 학생부종합전형) 등 수시 모집의 방식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이라고 한다. 특히 서울대 같은 명문대의 경우 수시 선발 인원의 100%를 학생부종합전형으로만 선발할 계획이다(서울신문 2017).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한 대학입시 전형의 증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의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해마다 수정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충실도를 높이는 방향보다는 기록의 편리함과 교사 및 학생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상황' 기록 축소는 현재 독서교육의 근간을 크게 흔들고 있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암기식 및 주입식 교육을 탈피한 창의성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시스템으로의 변화를 인정해왔다. 하지만 2016년 12월에 발표한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상황' 기재요령을 보면 학생들의 통합적이고 확산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활동이 아닌 도서 목록을 단순하게 나열하여 기록하는 것으로 창의성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도서명을 입력하는 것은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창의성

교육의 핵심에 어긋난다. 이는 결국 독서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독서 기록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독서는 단순한 책 읽기를 넘어서 학생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고력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활동이다. 책 읽기 활동 이후 학생들은 어떤 책을 읽고 사고하였는지 기록하게 된다. 따라서 독서 기록은 학생들의 지적 성장과 발달과정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런 이유로 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상황'을 강조하였고, 학교생활기록부 독서기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독서기록은 학생들의 지적 성장을 위한 기록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제시되고 있는 '독서활동상황'란의 기록지침은 독서활동의 질적 양적인 측면 모두를 심각하게 평가 절하하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상황' 기재 방식의 변화된 내용은 무엇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 기록의 문제점과 독서활동 기록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과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상황' 기재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상황' 기록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 기록에 대한 양상과 인식 분석을 우선

하는 것이 앞으로 독서활동 기록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에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가정을 하게 되었다. 이 연구의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상황' 기재요령의 변화과정을 조사하고, 현재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 기록에 대한 경향을 파악한다.
- ② 학생들의 독서활동 기록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독서활동 기록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학교생활기록부와 독서활동 기록

2.1.1 학교생활기록부의 이해

1949년 말 교육법을 제정 및 공포하고 1955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공포되면서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철학이 반영된 학생의 생활경험을 중시하려는 취지에서 학교생활기록부가 도입되었다. 1955년 문교부 훈령 제10호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식 및 처리요령”으로 효시 되었으며, 이후, 30차례 개정 과정을 거쳤다. 교육부는 2016년 11월 24일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 중심의 종합기록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정책브리핑 2016). 이번 개선 방안은 학교생활기록부 권한 관리 실태 전수조사와 현장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된 방안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과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에 따라 학생 참여형 수업 및 과정 중심 수행평가가 확

대됨을 고려하였으며,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 기록의 연계를 높이고자 하였다. 교육부의 과정 중심 수행평가가 확대됨에 따라 교과와 연계한 독서가 강조되었고, 전달식 수업의 형태가 토의와 토론 문화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30차례의 개정으로 독서가 권장이 아니고 실천해야 하는 사항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지성과 인성의 균형을 통해 전인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누가기록 장부로서, 학생의 신변사항·출결사항·신체발달과 건강상태·장래희망과 계획·특별활동·성격형성과 발달·각종 검사결과 등 교사의 중요한 관찰사항이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초·중등학교에 따라 작성 양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4400호] 제25조(학교생활기록)에 근거하여 인적사항·학적사항·출결사항·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교과학습발달상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자료를 교육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 및 관리되어야 하며, 기록의 정확성·포괄성·체계성·연속성·실용성이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능과 용도는 다음과 같다(류은상 2000).

(1) 교수-학습 지도

교사가 교수-학습 및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학생의 학교생활 과정에서 이루어진 총체적인 활동을 자세하고 충실하게 기록해야 한다. '교과학습발달상황'란을 통해 각 교과에 대한 학

업성취 수준과 각 과목의 세부영역에서의 강·약점을 파악할 수 있어 학생을 위한 수준별 학습이나 향후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된다.

(2) 학생-학부모를 위한 정보 제공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학교생활기록부가 제공되면서 현재 재학 중인 자녀의 학교생활기록에 대한 정보 열람이 용이하게 되었다. 첫째, 학교기본정보, 교육과정, 학사일정, 급식식단표, 가정통신문 등의 학교 정보가 제공되며, 둘째, 학교생활기록부, 학습자료, 성적, 학생 생활, 대학입시 전형 자료 제공 현황, 건강기록부, 방과 후 학교, 진로/상담 자료, 심리검사, 교육비 납입 현황 등의 학생정보가 제공된다. 셋째, 상담공지사항, 상담신청 및 조회 내역 등의 학부모상담이 제공되며, 넷째, 측정마당, 평가마당, 처방마당, 스포츠클럽 등의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가 제공된다. 마지막을 학업지도, 인성지도, 진학지도, 진로지도, 특수아지도, PAPS 콘텐츠, 내 자녀 건강 알리미 등의 자녀교육 활용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료는 자녀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활동, 학업 성취도 및 관심분야, 학교 적응 및 고민 등을 파악할 수 있어 가정에서 자녀를 지도하는 데 중요한 용도로 활용된다.

(3) 진학 및 취업을 위한 증빙자료

2014년 입학사정관제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각 대학은 수시전형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지원하는 대학 전공이 학교생활기록부와 얼마만큼 일치하고 성장 과정과 잠

재력이 있는지에 따라 합격 당락을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대학은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일반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참고하여 학생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다양한 경험 및 활동을 평가할 수 있고,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반영하여 인성 및 성장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취업을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요한 입사서류가 된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성실도나 인재상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교생활기록부는 진학 및 취업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써 활용되고 있다.

2.1.2 학교생활기록부의 독서활동 기록

외국 사례의 경우 '독서활동'을 기록하는 나라 는 드물다. 한국과 달리 외국은 교과목 성취와 관련된 사항을 많이 기록하며, 나머지 사항은 간략화하여 기재된다.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상황'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95호] 제15조3(독서활동상황)에 근거하여 작성하게 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중·고등학교의 개인별·교과별 독서활동상황은 독서활동에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말에 입력한다.
- ② 학생이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를 교과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표 1〉은 최근 3년간 각 학교에 배부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다. 기재예시를 보면 2015년은 학생들이 독서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느낀 감상을 위주로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과 2017년은 학생들의 느낀 점과 감상이 배제된 도서명(저자)의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의 특이한 점은 2014학년도부터 학급담임교사가 입력하던 '인문', '사회', '과학', '체육·예술' 등 4개 영역을 '공통'으로 단일화하여 서식을 간소화한 것이다. 2016년 이후 시작된 서식의 간소화는 학교와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도서량 부풀리기, 실제 독서 활동과 다른 채우기 식과 같은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독서활동상황'란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관찰할 수 없어서 학생들에게 셀프 기록을 맡기고 있다. 학생들은 현재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학교도서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독서

종합지원시스템(DLS)이 연동되지 않아 독서활동을 이중으로 입력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4년 입학사정관제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각 대학은 수시전형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지원하는 대학 전공이 학교생활기록부와 얼마만큼 일치하고 성장 과정과 잠재력이 있는지에 따라 합격 당락을 결정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자기소개서 3번 항목 '최근 3년간 읽었던 책 중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3권 이내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라'이다. 대학은 '독서활동상황'을 참고하여 학생의 다양한 경험 및 활동을 평가하고 있으며 인성 및 성장잠재력을 평가한다. 따라서 대학입시에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는데 '독서활동상황'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기록된 도서명의 자료를 보고는 학생의 성장잠재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

〈표 1〉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상황' 기재요령

연도	기재요령	기재예시
2015년 [훈령 제15조의2 (독서활동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담임교사가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임교사도 입력할 수 있다. '독서활동상황'란에는 독서성향(독서 관심분야)과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를 '도서명(저자)'의 형식의 독서이력을 사실 위주로 입력하고 독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입력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2학기) 성장소설인 '나의 아름다운 정원(심00)'을 읽고 작품 내용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여 창의적이고 진정성이 돋보이는 감상문을 씀.
2016년 [훈령 제15조의3 (독서활동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담임교사가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임교사도 입력할 수 있다. '독서활동상황'란에는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성향(독서관심분야)과 특이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되, 독서이력은 '도서명(저자)'형식으로 기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2학기) '나의 아름다운 정원(심00)'
2017년 [훈령 제15조의3 (독서활동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서활동은 교과목별로 해당교과 관련 독서활동을 교과담임교사가 입력하되, 특정 교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학급담임교사가 공통으로 입력할 수 있다. '독서활동상황'란에는 학생이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를 입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2학기) '나의 아름다운 정원(심00)'

학생들은 도서를 통해 자신의 사고 과정에 따라 글을 이해하고 이해된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기록하게 된다. 독서활동 기록은 독서 일지 또는 독서 노트 등과 함께 혼용되기도 하지만 독자의 생각이나 느낌처럼 독자의 반응을 표현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기록한 결과물로 자신의 사고과정을 기록한 자신만의 독서 이력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책의 내용이나 줄거리, 느낌 등을 기록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독서활동 기록의 구성 요소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박동진 2010).

독서활동 기록은 독자가 책의 내용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기록을 통해 독서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해주고 평생 독자로의 기틀을 마련한다고 할 수 있다.

2.1.3 독서활동 기록에 대한 인식의 영역

고등학생의 독서활동 기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영역을 <표 3>과 같이 두 요인으로 구분하였다(송수자 2014).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독서활동 기록에 대한 내적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독서활동 기록의 개선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2.2 선행연구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상황'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국내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기록 방식 연구의 검토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제시하였다.

류은상(2000)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이론적 기

<표 2> 독서활동 기록의 구성 요소

	요소	세부요소
도서와 관련된 정보 요소	형식적 정보 요소	서명, 저자, 역자, 쪽수, 출판사, 출판연도, 판형
	내용적 정보 요소	도서의 목차, 도서의 주요 내용, 줄거리, 주제, 구성, 문제, 도서의 장르유형, 저자의 의도, 책의 표지, 삽화
필자와 관련된 감상 요소	도서 내용과 관련된 감상 요소	도서내용에 대한 해석, 도서내용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 도서내용에서 비롯된 느낌이나 감동, 도서내용에서 비롯된 깨달음이나 교훈, 도서 내용과 관련된 필자의 의견이나 생각, 독서 후에 변화된 생각이나 태도, 독서 후에 새롭게 알게 된 지식, 도서 내용과 관련된 필자의 경험이나 배경지식
	독서행위와 관련된 수행 요소	독서를 하게 된 이윤 동기, 독서의 방법이나 과정에 대한 성찰, 도서 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료나 도서

<표 3> 독서활동 기록에 대한 인식 영역

영역		독서활동 기록에 대한 인식의 하위 요소
내적 요인	인지적 인식	독서활동 기록으로 얻게 되는 내용, 독서활동 기록의 필요성, 관련지식, 기억력, 어휘력, 사고력 등
	정의적 인식	독서활동 기록에 대한 동기, 독서활동 기록 습관, 독서활동 기록에 대한 태도 등
	수행적 인식	독서활동 기록의 방법, 독서활동 기록의 경험 등
외적 요인	교육적 인식	독서활동 기록 지도 내용과 방법, 독서활동 기록에 대한 지도 프로그램, 독서 환경 등

초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의의, 개정 배경, 기능과 용도, 작성 기준, 외국의 학교생활기록부 제도 등을 연구하였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제점으로 국가에서 단일화된 양식을 지정하여 지역 특성화와 자율화를 저해한다는 점, 입시 위주로 교육적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 교사들의 업무 가중 등을 제시하였다. 개선 방안으로는 자율적이고 특성화 된 체제로 전환, 전형 방법의 다양화, 학교생활기록부의 보존 기간의 축소, 학년 급에 따른 다른 양식을 채택할 필요 등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초기에 진행된 연구라 구체적인 개선안과 이에 따른 근거 제시가 부족하다.

김홍원 외(2005)의 연구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활용에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과 외국의 학교생활기록부 양식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생활기록 자료로서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현황,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활용 개선을 위해 대학에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대학입시전형방법의 다양화, 입학사정관의 도입 및 확대, 지역균형선발제의 확대,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는 심층 면접 실시, 비교과영역 평가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 확대, 대학의 정보 공개, 충분한 학교생활기록부 평가 시간 확보, 고교-대학 연계체제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교육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내용이 다소 부족하였다.

김순남 외(2013)의 연구는 국내·외 학생평가 전반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고, 학생평가 방향 및 내용 측면, 방법 적용의 측면, 지원 측면 등에서의 문제를 탐색하였다. 국가, 학교, 교과 수준의 학생평가 특징을 국제적으로 비교하

여 우리나라 학생평가의 향후 정책 과제 및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별 사례가 도덕, 수학, 사회로 국한되어 다른 교과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다소 부족하다.

박근열 외(2014)의 연구는 학교생활기록부가 개선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수립에의 개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및 교육적 활용방법을 분석하였다. 국제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서식 및 기재 방식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의 교육적 활용 및 연계 방안의 구체적인 제시가 미흡하다.

선행연구들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기록 방식에 대한 연구, 학교생활기록부 개선방안 연구 및 국제비교에 대한 연구와 같이 주로 학교생활기록부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였고, 교사를 위한 매뉴얼의 형식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독서활동 기록에 대한 의의나 기록 방식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 기록을 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활동 기록 양상과 독서활동 기록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독서활동 기록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 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 기록에 대한 인식

3.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 기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충청

남도 소재 남녀공학인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60명, 여학생 60명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설문 기간은 2017년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되었고, 설문지는 남학생 56명, 여학생 57명으로 113부(94%)가 회수되었다. 본 연구 대상 학교는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서 교사 1명이 배치되어 있고, 사서 교사가 창의적 체험 활동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독서 프로그램이나 도서관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전국 수준에서 상위권에 속하고 대학입시에 매우 민감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3.2 설문 내용 및 문항 구성

본 연구의 설문지 문항은 선행연구(송수자 2014)에서 사용한 항목을 참고하여 학교생활 기록부 독서활동 기록 양상과 인식을 영역별로 세분화하여 <표 4>와 같이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설문 내용

영역	문항 내용(문항 수)
성별	성별(1)
독서활동 기록 양상	1. '독서활동'란 기록의 주체(1) 2. 독서활동 기록의 만족도(1) 3. 독서활동 기록의 불만족 이유(1) 4. 도서 목록 제공처(1)
독서활동 기록 인식	1. 독서활동 기록의 목적(1) 2. 독서활동 기록의 필요 여부(1) 3. 독서활동 기록의 필요성(2) 4. 입학사정관과 독서 평가(2) 5. 독후 활동의 종류(1) 6. 바람직한 독서활동 기록 방법(1) 7. 독서활동에 있어 독서 동기(1) 8. 독서활동 기록의 활용방안(1)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 기록 양상을 조사하기 위해 독서활동 기록의 주체와 기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학생들의 기록에 대한 불만족 이유, 실제 독서활동 기록을 위한 도서 목록을 제공받는 경로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독서활동 기록을 학생들이 바라보는 관점을 분석하기 위해, 독서 동기, 독서활동 기록의 필요성, 독후 활동에서 독서활동 기록의 선호도, 가장 바람직한 독서활동 기록 방법, 현재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요구, 앞으로 독서활동 기록의 활용 방안 등의 내용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3.3 설문 결과 및 분석

현재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 기록에서 누가 기록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이런 의미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표 5>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02명(90.2%)의 학생들이 스스로 독서활동 기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교사가(6.2%) 기록하는 것을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으나 대부분 자신이 주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반응하였다. 이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독서활동상황'란의 분량이 많아 교과 교사나 담임교사가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학생 입장에서는 교사가 방대한 양을 기록하면 자신의 독서활동 기록내용이 부실할 것을 우려하여 직접 기록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해석된다.

다음으로 현재 학교생활기록부의 '독서활동'란 기록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항목에는 다음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대체로 현재 기록에

〈표 5〉 ‘독서활동’란의 기재 주체

문항	남학생	여학생	합계
1. 본인	50명(44.2%)	52명(46.0%)	102명(90.2%)
2. 교과교사	6명(5.3%)	1명(0.9%)	7명(6.2%)
3. 담임교사	0명(0.0%)	2명(1.8%)	2명(1.8%)
4. 사서교사	0명(0.0%)	2명(1.8%)	2명(1.8%)
5. 기타	0명(0.0%)	0명(0.0%)	0명(0.0%)
합계	56명(49.5%)	57명(50.5%)	113명(100.0%)

〈표 6〉 ‘독서활동’란 기록에 대한 만족도

구분	남학생	여학생	합계
만족	25명(22.1%)	24명(21.3%)	49명(43.4%)
불만족	31명(27.4%)	33명(29.2%)	64명(56.6%)
합계	56명(49.5%)	57명(50.5%)	113명(100.0%)

대해 만족하지만, 남학생 31명(27.4%)과 여학생 33명(29.2%)이 불만족을 나타냈다. 〈표 6〉에 의하면 학생 스스로가 독서활동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만족도가 클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7〉은 ‘독서활동상황’란 기록에 불만족한 학생 64명을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것이다. 불만족의 이유는 ‘실제로 독서를 하지 않은 목록에 대한 기록’ 23명(35.9%)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리고 ‘진학을 위한 과도한 독서활동 기록’ 22명(34.3%), ‘기록을 위한 독서 시간 낭비’ 12명(18.8%), ‘독서활동 기록할 때 글자 수 제한’ 3명(4.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현재 학교생활기록부종합전형에서 독서가 나름대로 비중 있게 평가된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대학 입학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과장하여 기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읽지 않은 부분의 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전형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독서기록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기 때문에 앞으로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잘못된 기록 방식인 ‘읽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 걸리지 않으면 독서활동 기록 무용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기타로 ‘자신이 작성한 글을 잘 못 쓴 것 같다’, ‘실제로 읽었지만 교과교사나 담임교사가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 발생’, ‘실제로 책을 읽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독서활동 기록을 하지 못하였다’ 등의 이유가 조사되었다.

〈표 7〉 ‘독서활동’란 기록에 대한 불만족 이유

문항	합계
1. 실제로 독서를 하지 않은 목록에 대한 기록	23명(35.9%)
2. 진학을 위한 과도한 독서활동 기록	22명(34.3%)
3. 독서활동 기록할 때 글자수 제한	3명(4.7%)
4. 기록을 위한 독서 시간 낭비	12명(18.8%)
5. 기타	4명(6.3%)
합계	64명(100.0%)

〈표 8〉은 학생들이 '독서활동'란에 기록하기 위해 도서 목록을 어디서 제공받느냐는 질문에 답한 분석 결과이다. 여학생의 49명(43.3%)과 남학생 28명(24.8%)이 '인터넷 및 신문 도서 정보'에서 목록을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수행평가 과제 목록'을 통해 10명(8.8%)이 제공받는다고 하였다. 이는 남학생들의 독서가 여학생의 독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제에 기초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 대부분은 '교과교사 추천' 6명(5.3%), '진로상담교사 추천' 3명(2.7%), '사서교사 및 사서 추천' 6명(5.3%) 순으로 응답하였고, 전체적으로 학생들은 도서 선택에서 과거 장서 수의 제한과 도서 선택 정보가 부족하던 시절에 비해 자기 주도적 독서 성향이 강한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기타에 자유 항목에도 나타났는

데, 10명의 학생은 '학교도서관에 가서 직접 도서를 선택한다'(4명), '친구들의 추천을 받는다'(2명), '끌리는 도서를 읽는다'(2명), '읽고 싶은 도서를 읽는다'(2명) 등으로 응답하였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바람직한 도서 선택을 위한 사회적 도서 정보의 제공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 기록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독서와 관련하여 '독서활동 기록'란의 목적, 독서활동 기록의 필요성, 학생들의 독서 흥미 유발 요인, 현재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란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분석하였다. 다음은 '독서활동'란의 기록 목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분석 결과이다. 〈표 9〉를 살펴보면 남학생 22명(19.5%)과 여학생 10명(8.8%) 총 32명(28.3%)이 '학생들의 독서 지

〈표 8〉 도서 목록 제공처

문항	남학생	여학생	합계
인터넷 및 신문 도서 정보	28명(24.8%)	49명(43.3%)	77명(68.1%)
교과교사 추천	5명(4.4%)	1명(0.9%)	6명(5.3%)
진로상담교사 추천	2명(1.8%)	1명(0.9%)	3명(2.7%)
사서교사 및 사서 추천	3명(2.7%)	3명(2.7%)	6명(5.3%)
수행평가 과제 목록	10명(8.8%)	1명(0.9%)	11명(9.7%)
기타	8명(7.0%)	2명(1.8%)	10명(8.8%)
합계	56명(49.5%)	57명(50.5%)	113명(100.0%)

〈표 9〉 '독서활동'란의 독서활동 기록 목적

문항	남학생	여학생	합계
학생들의 독서 수행 측정	8명(7.1%)	14명(12.4%)	22명(19.5%)
학생들의 독서 지식 측정	22명(19.5%)	10명(8.8%)	32명(28.3%)
학생들의 독서 태도 확인	10명(8.8%)	11명(9.7%)	21명(18.6%)
학생들의 진학을 위한 자료 수집	14명(12.4%)	12명(10.6%)	26명(23.0%)
기타	2명(1.8%)	10명(8.8%)	12명(10.6%)
합계	56명(49.5%)	57명(50.5%)	113명(100.0%)

식 측정'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에 '독서활동상황'을 기록한다고 응답하였다. 학생들 대부분은 책 내용을 이해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목적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진학을 위한 자료 수집' 26명(23.0%), '독서 수행 측정' 22명(19.5%), '독서 태도 확인' 21명(18.6%), 기타 12명(10.6%)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교육부의 원래 취지의 목적인 다양한 목적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 기록의 필요여부는 <표 10>으로 응답하였다. 여학생은 '필요하다'라는 반응이 31명(27.5%)으로 '필요 없다' 26명(23.0%) 반응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은 '필요 없다' 29명(25.7%)으로 '필요하다' 27명(23.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하다'에 응답한 학생 58명(51.3%)을 대상으로 필요한 이유를 조사하였다.

<표 11>은 '독서활동' 기록의 필요한 이유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26명(44.8%)의 남·여 학생은 '독서를 통한 학생의 성장을 보여준다는 것'에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학생 대부분이 독서활동 기록을 외적 보상보다는 내면의 성장에 큰 가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진학 및 취업을 위한 준비정도를 제공'해 준다고 17명(29.4%)이 응답하였다. 이는 최근 대학 전형 중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기록부의 독서활동 기록을 대학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독서활동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필수적으로 기록되면서 학생들이 독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자기 성장에 대한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독서활동상황' 기록이 '필요 없다'라는 학생 55명(48.7%)의 필요 없는 이유는 <표 12>에서 알 수 있듯이 '형식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독서

<표 10> '독서활동' 기록의 필요여부

구분	남학생	여학생	합계
필요하다	27명(23.8%)	31명(27.5%)	58명(51.3%)
필요 없다	29명(25.7%)	26명(23.0%)	55명(48.7%)
합 계	56명(49.5%)	57명(50.5%)	113명(100.0%)

<표 11> '독서활동' 기록의 필요성

문 항	남학생	여학생	합계
교과와 연계한 독서활동 및 수행평가내용을 효과적으로 기록해준다	5명(8.6%)	5명(8.6%)	10명(17.2%)
교사와 학부모에게 학생의 독서활동 정보를 제공해준다	3명(5.2%)	2명(3.4%)	5명(8.6%)
진학 및 취업을 위한 준비정도를 제공해준다	9명(15.6%)	8명(13.8%)	17명(29.4%)
독서를 통한 학생의 성장을 보여 준다	10명(17.2%)	16명(27.6%)	26명(44.8%)
기타	0명(0%)	0명(0%)	0명(0.0%)
합 계	27명(46.6%)	31명(53.4%)	58명(100.0%)

〈표 12〉 ‘독서활동’ 기록의 불필요성

문항	남학생	여학생	합계
형식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18명(32.7%)	17명(30.9%)	35명(63.6%)
기록을 위한 시간 낭비 때문에	1명(1.8%)	4명(7.3%)	5명(9.1%)
대학이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2명(3.7%)	0명(0.0%)	2명(3.7%)
기록보다는 본인의 내적 성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7명(12.7%)	5명(9.1%)	12명(21.8%)
기타	1명(1.8%)	0명(0.0%)	1명(1.8%)
합계	29명(52.7%)	26명(47.3%)	55명(100.0%)

활동 기록이 필요 없다고 35명(63.6%)의 학생들이 응답하였다. 이는 앞에서 본 〈표 7〉 ‘독서활동’란 기록에 대한 불만족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과도하거나 읽지 않은 내용을 기록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독서활동 기록 불필요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독서기록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한 보다 의미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란을 실제로 읽고 평가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남학생은 37명이 ‘예’로 응답하였고, 18명 학생만이 ‘아니요’로 응답하였다. 여학생도 마찬가지로 35명이 ‘예’로 응답하였고, 22명 학생이 ‘아니요’로 응답하였다. ‘아니요’로 응답한 학생 총 40명을 대상으로 응답한 이유를 조사하였다. 실제로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의 기재에 있어서 가장 큰 동인은 독서 기록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다.

독서의 큰 동인인 학생부종합평가에서 입학사정관들이 평가에 있어서 독서기록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독서기록의 성패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다루어 지지 않았다. 그리고 학생들

은 입학사정관들이 독서기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를 알아보는 것이 ‘독서활동상황’란의 기록형태와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다. 대부분의 학생은 입학사정관들이 자신의 독서활동을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표 13〉의 이유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즉, ‘독서활동 기록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18명(45.0%), ‘독서활동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11명(27.5%), ‘독서활동 평가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9명(22.5%), ‘학생이 기록한 독서 내용이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으로 응답하였다.

지금까지 현재 학교현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독서활동’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보았고, 실제 학생들의 독서 동기와 독서 후 독후 활동을 조사해 보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의 ‘독서활동’ 기록이 변화돼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해 보았다.

실제 학생들의 독서 욕구를 가장 복돋우어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남학생 34명 여학생 33명은 ‘본인의 독서량을 확충하고자 하는 의지’로 응답하였다. 남학생 18명과 여학생 17명은 ‘스스로의 내적 성장 의지’로 응답하였다. ‘교사의 칭찬과 격려’는 총 5명, ‘부모님의

〈표 13〉 입학사정관들이 ‘독서활동’란을 평가하지 않는 이유

문항	남학생	여학생	합계
독서활동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5명(12.5%)	6명(15.0%)	11명(27.5%)
독서활동 기록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8명(20.0%)	10명(25.0%)	18명(45.0%)
‘독서활동’ 평가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3명(7.5%)	6명(15.0%)	9명(22.5%)
학생들이 기록한 독서 내용이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2명(5.0%)	0명(0.0%)	2명(5.0%)
기타	0명(0.0%)	0명(0.0%)	0명(0.0%)
합계	18명(45.0%)	22명(55.0%)	40명(100.0%)

격려’ 4명, 기타 2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독서 동기의 외적인 동기 유발보다도 내적 동기 유발을 학생들이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서활동 후 하고 싶은 독후 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해 〈표 14〉처럼 조사되었다. ‘친구와의 독서 토론’과 ‘독후감 쓰기’가 22명(19.5%)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현장에서 독서 토론이 활성화되어 독서 토론을 경험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하는 활동도 학생들이 즐기지만 친구와 교사와의 독서 토론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독서활동’란의 가장 바람직한 기록 방법을 조사하였다. 2017년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독서활동’란 기재 사항은 도서명(저자명) 기록 형태이다. 이미 3월 초에 학생들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

법에 대한 연수를 받은 상태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현재 ‘독서활동의 세부 교과 항목을 삭제하고, 학생 자율적인 독서활동 기록’ 방법에 남학생 21명(18.6%), 여학생 26명(23.0%)으로 대부분 학생(41.6%)이 응답하였다. 29명(25.7%)은 현재의 방법을 선호하였고, 기존 ‘독서활동 란을 삭제하고, 교과세부특기항목으로 독서활동 기록’을 하는 방법에 21명(18.6%)의 학생이 응답하였다. 이는 학생 중심의 수업과정이 현장에 들어오면서 교과 선생님이 도서를 활용한 수행평가가 많은 추세이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활동한 내용이 기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형식적인 독서가 아닌 ‘실제 독서한 목록만 독서활동 기록’ 방법에 14명(12.4%)이 응답하였다.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현재 ‘독서활동’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자유 응답을 요청하였다. ‘독

〈표 14〉 독서활동 후 하고 싶은 독후 활동

문항	남학생	여학생	합계
독후감 쓰기	10명(8.8%)	12명(10.6%)	22명(19.5%)
서평 쓰기	7명(6.2%)	9명(8.0%)	16명(14.2%)
도서 목록 일지 작성	7명(6.2%)	7명(6.2%)	14명(12.4%)
친구와의 독서 토론	17명(15.0%)	5명(4.4%)	22명(19.5%)
교사와의 독서 토론	5명(4.4%)	11명(9.7%)	16명(14.2%)
특별한 활동이 필요 없음	10명(8.8%)	13명(11.5%)	23명(20.4%)
합계	56명(49.5%)	57명(50.5%)	113명(100.0%)

〈표 15〉 본인이 생각하는 ‘독서활동’ 기록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

문항	남학생	여학생	합계
‘독서활동’의 세부 교과 항목에 도서명(저자명)기록	14명(12.4%)	15명(13.3%)	29명(25.7%)
‘독서활동’란은 삭제하고, 교과세부특기항목에 독서활동 기록	12명(10.6%)	9명(8.0%)	21명(18.6%)
‘독서활동’의 세부 교과 항목을 삭제하고, 학생 자율적인 독서활동 기록	21명(18.6%)	26명(23.0%)	47명(41.6%)
실제 독서한 목록만 독서활동 기록	7명(6.2%)	7명(6.2%)	14명(12.4%)
기타	2명(1.8%)	0명(0.0%)	2명(1.8%)
합계	56명(49.5%)	57명(50.5%)	113명(100.0%)

서활동은 학생 흥미에 대한 증거로 활용되어야 한다.’, ‘학생의 독서 유형을 입학사정관에게 알려주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그동안 목록을 통해 자신의 독서 계획 수립을 할 때 활용되어야 한다.’, ‘교과와 비교과영역(봉사활동, 대회, 진로활동 등)과 연계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 접근도와 관심도로 활용되어야 한다.’, ‘특히 좋아하는 과목을 독서로 통해 더 우수한 학습을 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한 주제에 대한 다각도로 연구한 것을 보여 준다.’ 등으로 응답하였다.

3.4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 기록 개선 방안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 기록은 학생의 내적 성장을 이해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독서활동상황’란의 기재를 보면 기록편의주의나 양적으로 도서명이 기록되어 그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독서 본연의 목적을 상기하여 그것을 토대로 기록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 기록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즉 교육적 측면에서 도서명(저자명)을 적는 방식보다 학생

들의 총체적인 성장 과정을 입력할 필요가 있으며, 독서종합지원시스템에 근거하여 기록해야 한다. 평소 학생이 독서한 내용을 독서종합지원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와 연동되어 학생들의 기록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 개인의 독서 생활 설계를 지원할 수 있는 독서 멘토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학년별, 연령별에 적합한 도서 목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위해 독서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교과학습발달상황’란을 활용하여 교과와 관련한 독서활동을 교과 내용과 함께 기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과 연계한 독서활동을 조성하고,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활동을 통해서 지적 성장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기록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상황’란에 대한 교사들의 의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들의 과장되거나 채우기 식의 기록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독서활동상황’ 기록 지도를 위한 충분한 연수가 필요하다.

다섯째,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학교생활기록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연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입학사정관들이 독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독서활동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독서활동 평가에 대한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독서 관련 학회나 단체에서 대학 입학사정관들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 기록을 위한 독서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첫째,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양상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으며, 둘째, 현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 기록에 대한 문제점과 독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고등학생들에게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 기록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수렴하였다. 셋째, 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양상과 인식분석 결과를 토대로 독서활동 기록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 기록의 주체는 교과교사에 비해서 담임교사가 대부분 기록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독서활동 기록을 하면서 학생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더해 독서활동 기록은 도서명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여 고등학생들의 독서 흥미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위한 기록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대학입시 반영을 위해 학생들이 독서활동 기록을 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아울러 대학입시정책에서 독서와 관련한 평가 축소로 학생들의 독서활동에 대한 기록은 점점 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독서활동 기록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 부족으로 독서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은 인터넷으로 자료를 검색하여 책을 읽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독서기록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우선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독서활동 기록은 학생의 도서명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를 통한 학생의 성장 및 변화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학생들의 성장 발달에 적합한 도서 목록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사서교사뿐만 아니라 교과 교사 및 담임교사가 독서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지녀 올바른 독서지도를 한다면 현재 독서활동 기록에 대한 학생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과와 연계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과 내용과 함께 기록할 필요가 있다.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활동 과정에서 성장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독서활동 기록에 대한 학생과 교사들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학교생활기록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연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독서활동 기록이 고등학생들의 바람직한 독서문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책연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내적 성장을 표현할 수 있는 기록방법연구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독서활동 기록의 질적인 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연구들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방안』 발표. 2016. 『정책브리핑』. 11월 24일. [online] [cited 2017. 5. 12.]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869>>
- [2] 김순남 외. 2013.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학생평가 정책 연구: 국제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OR 2013-09.
- [3] 김홍원 외. 2005. 『2008 대학입시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활용 개선방안 연구정책브리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4] 류은상. 2000. 『초·중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과정전공.
- [5] 박균열 외. 201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 및 교육적 활용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OR 2014-1.
- [6] 박동진. 2010. 국어교육: 독서 감상문 쓰기의 실태 - 구성 요소 분석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4: 109-125.
- [7] 송수자. 2014. 『독서 기록의 실행 양상과 인식에 대한 연구: 초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초등국어교육학과.
- [8] 충청남도교육청.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용)』.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 [9] 충청남도교육청. 201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용)』.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 [10] 충청남도교육청. 201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용)』.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 [11] “학생부 관리 = 대입” ... 학종시대 컨설팅업체 기승. 2017. 『서울신문』. 5월 2일. [online] [cited 2017. 5. 12.]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503008009>>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Ministry of Education. 『Improvement of Writing School Life Record』 Announcement. 2016. *Policy Briefing*. November 24. [online] [cited 2017. 5. 12.]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869>>
- [2] Kim, Soon-Nam et al. 2013. *A Study on Student Evaluation Policy for Fostering Creative Talents: Focusing on International Cases*.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OR 2013-09.
- [3] Kim, Hong-Won et al. 2005. *2008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cords and Utilization*

- of School Life Records for Successful Settlement of 2008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4] Ryu, Eun-Sang. 2000. *A Study on Student's Progress Report*. M.A. thesis, Major in Curriculum Course, Dank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Republic of Korea.
- [5] Park, Gyun-Yeol et al. 2014.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the Method of Recording School Life Records and Educational Use*. Seoul: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OR 2014-1.
- [6] Park, Dong-Jin. 2010. "Korean Language Education - Actual Conditions of Writing Book Reports: Focused on Component Analysis." *The Academy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84: 109-125.
- [7] Song, Soo-ja. 2014. *A Study on the Practice Patterns and Perceptions of Reading Records: Focusing on the Third Graders*. M.A. thesis, Major in Elementary Korea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Republic of Korea.
- [8] Chungcheongnamdo Office of Education. 2015. *List of How to Write School Records (for Middle School)*. Chungnam: Chungcheongnamdo Office of Education.
- [9] Chungcheongnamdo Office of Education. 2016. *List of How to Write School Records (for Middle School)*. Chungnam: Chungcheongnamdo Office of Education.
- [10] Chungcheongnamdo Office of Education. 2017. *List of How to Write School Records (for Middle School)*. Chungnam: Chungcheongnamdo Office of Education.
- [11] ""The Management of School Life Record = Admission to University"... Consulting Firm is Severe." 2017. *Seoul Newspaper*. May 2. [online] [cited 2017. 5. 12.]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503008009>>